

국내의 영양관련 Web Page 자료 비교 및 영양정보화의 방향

대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최영선

1. 서론

오래 전부터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정보화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여 왔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의 문턱에서 그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정보화·분야에서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컴퓨터를 통해 가능한 현실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엄청난 변화를 느끼게 한다. 인터넷상거래는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으며, 사이버 가수, 사이버 학술대회, 사이버 각테일바, 인터넷서바이벌 게임 등의 단어들을 접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다. 정보통신기술의 이러한 변화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허물며, 세계가 하나라는 사실도 실감케 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정보의 홍수 시대에 귀중한 정보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보화사회에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1998년도 한국영양학회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움에서 대중매체와 영양정보에 대한 주제로 주로 TV, 라디오, 신문 등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대중 매체에 또 하나의 영역으로 인터넷을 추가하여야 할 만큼,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의 증가는 엄청나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주된 정보 교환의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Web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6개월 내에 web site 수가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정보는 개인이 판단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찾은 정보를 생산적인 곳에 활용하여 생산적인 일을 해내기 위하여 정보를 찾는다. 지식기반사회 또는 정보화시대에는 인간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가 값싼 노동력이나 원료 등 다른 생산요소를 대체하며, 정보와 지식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어떤 정보를 찾을 때는 그 정보를 왜 찾으며,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사용할 지 등의 계획을 세운 후에 어떤 수단을 통해 찾을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 상에서 쓸모없는 정보를 얻고 시간만 투자한 꼴이 된다. 그러므로 영양정보화의 방향도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영양학자들은 새로운 밀레니움을 맞이하여 유용한 web 영양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회, 전문기관, 대학, 개인 차원에서 다양하며 유용한 web page를 구축하고, 우리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최근의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내의 영양관련 web 현황

AltaVista나 Yahoo!와 같은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 site를 찾았을 때,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는 site를 다 들어가 볼 수가 없을 만큼 그 수가 많고 특정 주제나 전문가를 위한 site도 많은 반면에, 국내는 소개할 만한 site가 많지 않았다. 국내의 영양관련 web site는 우리 영양관련 학회나 영양학자들이 바로 정보제공자로서 web을 구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노력이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료된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영양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영양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대한 인터넷 정보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개발된 검색엔진을 사용한다. 검색엔진은 사용자인 client가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검색서버가 원격 정보들이 모여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검색하여 client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색 가능 공간에 따라 크게 일반 검색 엔진을 이용한 검색과 전문 DB를 이용한 검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 검색엔진은 기존의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있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며, 분야별 전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따로 있다.

인터넷의 데이터베이스는 적게는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천만 개의 문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찾고자 하는 특정 문서만을 검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국내에서 빈번히 이용하는 외국검색엔진과 한글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영양관련 site를 찾아 비교하여 보았다. "nutrition" 또는 "영양"을 주제어 검색과 디렉토리 검색으로 찾은 web site를 비교하면 주제어를 포함하는 web을 검색한 건 수가 디렉토리형 검색보다 월등히 많았다. 1999년 9월 기준으로 국외 정보검색 엔진으로는 AltaVista가 가장 많은 수의 2,465,170건의 nutrition 관련 web site를 찾았으며, 국내 검색엔진으로는 "영양"이라는 주제어에 대해 Naver로 찾은 web site 수가 14,6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많은 web site를 다 들어가 보기는 사실 불가능하며, 같은 IP인 경우가 여러개 검색되기도 한다. 따라서 영양(nutrition)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로 검색하는 경우는 오히려 directory 형 검색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directory형 검색에서는 영양(nutrition)은 health directory의 subdirectory에 속하며, 국내의 분류에서도 영양은 의학,건강에서 분류되고 있다.

실제로 영양 관련 web site를 찾아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상업성이 일차적인 목적임을 알 수 있다. Yahoo!로 nutrition을 검색하면 79개의 category 중 business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단지 16개 뿐으로, 이는 63개 category에 속한 web site는 nutrition을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주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이차적인 수단으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국내 web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양"이라는 주제로 검색된 대부분의 web site가 특정 식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다이어트관련 사업이나 업소, 외식관련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내용으로 취급되고 있다. 대학이나 학회와 같은 공인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web site는 매우 제한적이며, 검색되는 site는 주로 대학의 식품영양학과 home page나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개인 home page가 대부분이다.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 사용능력이 좋아서 자신의 전공을 인터넷과 접목시켜

home page를 재미있게 구성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데 적극적이다. 영양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는 영양정보화의 보급과 대중의 영양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home page들이 영양에서 검색되는 web page 들의 대부분을 구성하다 보면 그 정보의 질이 높지 않고 그 내용들이 대동소이한 경향으로 자칫 영양학을 가벼운 학문으로만 취급하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의 영양관련 사이트는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외에도 학회나 대학과 같은 공인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web page의 구축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 있으며, 이러한 영양학 정보의 균형된 보급은 일반인들의 영양학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3. 바람직한 영양정보화의 방향

영양관련 web 구축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1) Web 구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정보 제공이 주된 목적인지 홍보가 일차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home page의 특성이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축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web site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길라잡이”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건강 자료를 구축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교육, 홍보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강생활로의 실천 유도를 위한 최신의 건강 정보 제공, 보건교육자료 제공, 연구 및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자가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학회나 기관을 홍보하는 home page는 홍보성의 성격을 띠지만 부설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보의 공급이나 공유와 같은 공공성이 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양전문가의 자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web site로서 영양분야의 연구정보를 제공하거나 food composition data를 제공하는 site도 필요하다.

2) Web page의 자료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정보의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은 피하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이 불특정다수인 경우에도 건강인, 불건강인, 환자 등에 따라서도 제공하는 정보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주된 내용은 식생활에 관한 교양 및 정보, 영양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영양판정, 영양교육, 영양상담 등이 될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국내 영양관련 web site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영양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회원정보, 전공학술자료, 영양교육자료, nutrient database, current issue, hot issue, 통계 자료, 관련기관 및 단체에 관한 자료, 관련 web site 평가 및 소개 등의 내용이 될 것이다.

3) 정보제공이나 홍보가 목적인 아닌 영양학을 전공하는 동호인 모임과 같은 web page를

구축한다면 게시판이나 대화방과 같은 기능이 매우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길은 'WWW'로 통한다"라는 비유가 나올만큼 21세기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기업이나 기관 및 개인이 이용하는 시대가 될 것이며, 따라서 엄청난 수의 web site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영양에 관한 정보도 쏟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정보의 정확도를 파악하는 개인의 능력도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 영양학자들은 유용하며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신뢰도가 있는 정보를 판단하여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은 정보의 공급자(server)와 사용자(clien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기관이나 학회는 주로 공급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관이나 학회 차원에서 web을 통한 영양 정보화 추진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1) 영양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도를 파악한다.
- 2) 다양한 정보를 직접 제공한다. 정보의 내용과 수준을 대상(어린이, 환자, 일반인, 전문가 등)의 눈높이로 가공하여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전문가를 위한 연구정보나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우수한 영양관련 추천사이트를 소개하고 링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양정보를 제공한다.
- 4) 영양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양관련 web site를 지속적이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영양과 건강에 관련된 엉터리 web 정보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 4) 논쟁이 될만한 정보 및 site를 소개하여 대화 및 토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가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영양정보에 대한 갭을 줄인다.
- 5) 검색엔진에 web site 등록이 정확히 되도록 하여 정보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 6) 최신정보가 되도록 자료의 update를 실행한다.
- 7) 백화점식 web 서비스보다는 특화되고 전문화된 web 서비스를 지향한다.

참고문헌

- 김광조 외 9인. 정보교육: 정보화사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 박영출판사, 1997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증진 정보시스템 구축. 1999
- 이영미, 문수재. 식품영양학분야에서의 Network 정보의 활용, 한국영양학회지 30(7): 870-878, 1997
- 조혜순. 영양학 분야에서의 정보 기술 활용의 현재와 미래. 1998년도 한국영양학회 춘계학술대회
- Davison K, Finding nutrition information on the net. J Amer Dietet Ass 96:749-750, 1996
- Elay S, Nutrition research using electronic mail. Brit J Nutr 81:413-416, 1999

- Evers W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the profession. J Amer Dietet Ass 96:756-757, 1996
- Marwick C, Diet supplement data on the internet. J Amer Med Ass 281::313, 1999
- Merkel JM & Dittus KL, Cybern nutrition on-line: Educating nutrition students and the public in cyberspace. J Nutr Educ 30:66A-67A, 1998
- Reviews -한글검색엔진 비교분석, Calstec-Information Professional.
[Http://www.calstec.com/](http://www.calstec.com/), 1998 .
- Tillman HN, Evaluating Quality on the Net.
<http://www.tiac.net/users/hope/findqual.html>, 1999
- Wise A, Information technology in nutrtrion and dietetic education. Brit J Nutr 79: 547-550, 1998